

테마칼럼

이재상의 세상

원고출제 함머

정제르 세상보기

리모컨의 힘



이상길

최근 갑자기 집안에 전기가 나갔다. 전기기사가 와서 이곳저곳을 점검한 결과 냉장고에서 누전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하긴 신혼살림으로 구입한 것을 아직도 쓰고 있으니 고장 날 때 도 말도 싶었다. 이 와중에 또 TV 리모컨까지 말을 안 듣는다. 평일야야 볼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한껏 개음을 부리며 3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채널을 이리저리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막상 리모컨이라는 것이 고장나 버리니 여간 번잡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리모컨은 원격조지기(Remote Control Device)를 줄인 말이다. 1956년 미국의 제니스레디오사 엔지니어인 로버트 애들러가 최초의 무선리모컨을 개발했는데 그 이전 라디오 전자기에는 라디오용 유선 리모컨이 있었다고 한다. 로버트 애들러가 개발한 리모컨은 그 당시만 해도 최고급사양의 제품에만 구비되어 1950년대 중반까지는 유선과 무선 리모컨이 함께 보급되었다. 이것은 기술적인 한계와 함께 제조에 따른 높은 비용 때문이기도 했으나 더 근본적인 것은 볼 수 있는 채널이 얼마 안 되었기에 굳이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리모컨이 확산된 것은 1980년 이후였다. 케이블 TV, VCR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이후 1990년대에 미국의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서로 합종연횡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볼거리 채널이 증가하면서 채널을 탐색하는 도구로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90% 이상의 가구가 보유하게 되었다.

심지어 미래의 영상산업은 리모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을 정도인데 이에 적합한 예를 들자면 게임기인 닌텐도 위를 꼽을 수 있다. 위가 성공한 것은 물론 콘텐츠에서 기인하지만 그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원격조지기(리모컨)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직접 움직이며 즐기는 닌텐도 체험형 게임기 '위(Wii)'는 심지어 물리치료에도 사용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리모컨을 보유하면서 리모컨은 대중문화의 중요한 현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수용자는 광고주나 방송사가 주는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봐야만 했으나 이제 선택권을 가지면서 주도권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리모컨을 통한 시간적 재편은 영상 관련 산업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재편하고 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구상 어디라도 원하는 장소에 순간적으로 공간이동 하는 물리적 재편(zapping)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원격지에서 접속하는 통신로봇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물리적 생활공간도 전 지구차원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손바닥 안에 잡히는 조그만 리모컨을 통해 영상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호기심이 일어난다.

확하게 파악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다. IBM의 경우 쿼즈프로그램의 질문과 대답 사이에 광고를 삽입해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광고를 일치시키려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고의 길이 자체를 줄이기까지 하고 있다. 재핑과 관련한 재미있는 연구결과도 있다. 보통 공중파 방송에서 인기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흡소광 매출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녁 8시30분에서 11시 사이에 편성돼 있는 인기 프로그램들 방영 사이사이엔, 시청자들의 채널변경이 잦아지게 되는데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흡소광과 마주치면 오히려 즉흥적으로 쉽게 구매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소형가전이나 컴퓨터, 건강용품 위주의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김선명



지난주에 49종재가 있었다. 그날 제 주인 30대의 고등학교 교사인 아들이 어머니께 물리는 고사를 읽는데, 한 구절이 가슴에 남았다. '자신은 그동안 타인의 삶에 공감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공감하는 삶을 살겠다' 라는 것이었다.

공감하는 것은 타인의 세정을 알아주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며 그 실천이다. 공감과 실행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타인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공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 한마음이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또는 농작물이 되어 보는 것이다. 우주 만물은 한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농부와 작물이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실행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듯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실천하는 삶

접 짓기로 했다. 마음으로 친환경농법인 태평농법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고 있다. 태평농법의 핵심은 벼와 내가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을 통해 공감하는 것, 매일 논두렁에 나가 대화하고 살펴주고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풀 뽑고 물꼬 관리를 잘하는 등 실질적(실행)에 힘을 쏟는 것은 무말할 것도 없다. 태평농법을 위해서 새벽 좌상을 마치고 부지런히 논두렁에 나가 기도와 함께 살펴보고 온다.

그런데 소통하는 것, 공감하는 것, 실행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경계 따라 수만 갈래로 갈라지는 우리 마음도 멈추고 바라보고 돌리는 공부의 과정이 필요하듯, 소통하고 공감하고 실행하는 능력도 키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증 안된 성능 보조식품 구매시 주의

성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 보조기구 판매업자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스티커를 자주 본다. 하지만 이런 기구들이 알고 보면 거의 다 과장 광고이고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많은 실수로 이런 제품을 구매한 경우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철회를 요구하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좋겠다. ▲이준·광주시 서구 마루동

기고

윤석년



광주영어방송 개국이 엿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을 맞이하였다. 광주영어방송은 지난해 10월 허가 신청 이후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올 4월 1일 비교적 순조롭게 개국하였다. 지난 100일 동안 광주영어방송은 지역 영어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 각 걸음마를 시작한 광주영어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충성스러운 청취자들을 확보하는 데 있다. 현재 광주영어방송은 하루 4시간 30분 정도의 자체 편성에 그치고 있다. 이 정도로 청취자에게 지역정보 등 충분한 영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어려운 경제적 여건 탓으로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지만, 가을 개편 이후 자체 방송제작시간을 늘리는 등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

광주영어방송 100일을 맞아

부의 영어몰입 교육 강화 등의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 영어방송이 개국되었고, 올해 광주와 부산에 영어방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와 공공기관 그리고 주요 행사주체들이 관심양면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광주영어방송은 광주와 인근 군 지역 그리고 전남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방송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은 현재의 방송 출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 여수엑스포를 비롯하여 2010년 F1 경기 등 국제적인 행사와 환경 나비축제 등 대표적인 지역 축제에 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남은 물론 전북 등 호남지역 전역을 방송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방송권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와 행사주체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어방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비로소 실현가능해진다. 앞으로 광주영어방송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송서비스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이 요구된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無等鼓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을 요즘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 것 같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 이렇게 말이다.

그렇다면,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실례를 들여보자. A라는 사람은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중형 휘발유차를 탄다. 또 부인과 아들, 딸 4인 가족이다.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을 10만원, 난방비를 내고 도시 가스료도 10만원을 낸다. 그렇다면 이가족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될까?

탄소 발자국



이 지(carbon.kfri.go.kr)에 들어가 탄소나무 계산기에 입력해 보면 A가족은 연간 1만760kg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출량은 무려 3천324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어야만 해소할 수 있는 양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커져 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고 있는 자전거 붐, 대중교통 이용 운동 등은 고무적이다. 무슨생각에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한 작은 실천이 절실할 때다. /김일환 여천문화재단 k1h8@

TV 개고 프로 욕설·학대 심각한 수준

요즘 TV 프로그램은 욕설 아니면 학대로 시청자들의 여자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만 지나면 금세 질리고 가혹적인 프로그램은 역겹기까지 하다.

방망이를 들고 나와 지너석들끼리 장난을 치며 누가 더 잘 건디는지 내기를 하자며 설치기에 기겁을 해서 혼낸 적이 있다. 이렇듯 가혹적인 개고 프로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를 보지 말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김윤치·여천시 안산동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